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약보합 마감

- 미국증시 주요 지수 약보합: 다우 -0.21%, 나스닥 -0.08%
- ‘끈적한’ PCE 물가 지표..국채금리 반등
- 엔비디아 실적 확인 후 반도체주 시간외 상승폭 확대

Summary

미국증시 약보합

현지시각 8월 26일 수요일 미국증시는 대체로 예상 범위에 부합했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인 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마감 이후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등을 반영해 보합권에서 등락 끝에 소폭 하락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1% 하락한 53,463.88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02% 하락한 7,675.70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한 26,130.20에 마감했고 러셀2000 지수도 0.14% 하락 마감. 다만 반도체주가 대체로 상승한 영향으로 나스닥100 지수는 0.05% 소폭 상승 마감했으며 변동성 지수 VIX는 1.55% 하락.

(다우 -0.21%/ S&P500 -0.02%/ 나스닥 -0.08%/ 러셀2000 -0.14%)

‘끈적한’ PCE 물가

다음달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 7월치가 공개됨.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7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3% 상승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0.2%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다만 헤드라인 가격 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7% 상승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0.2% 상승해 시장 예상을 각각 0.1%p 상회했으며 연준의 목표치 2%도 크게 상회. 전반적으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물가지표였지만 7월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만큼 향후 물가 압력이 보다 강화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보다 더 둔화되지 않은 7월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 것으로 보임.

마감후: 엔비디아 실적

정규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가 전분기(회계연도 기준 27년 2분기) 실적을 공개. 매출은 962억 2천만달러를 기록해 예상을 웃돌았으며 1년 전에 비해 106%, 전분기에 비해 18% 성장했으며 조정 매출 총 이익률은 75%를 기록해 전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5%p 개선. 조정 주당 순이익은 2.22달러를 기록해 역시 예상치를 상회, 1년 전에 비해 120% 성장을 기록.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전분기 대비 63억 달러 증가, 566억 달러를 기록.

실적 성장은 AI 칩을 담당하는 데이터센터 부문이 견인했으며 2분기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89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 회계연도 3분기 매출 전망은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 1,080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이 전망에는 중국 데이터센터 컴퓨팅 매출은 반영되지 않음. 매출 총 이익률은 73.5%~74.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회사 CFO는 또한 회계연도 2028년도 매출은 약 7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러와 AI 클라우드 등에서 강력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으며 블랙웰 울트라 제품 믹스 개선이 매출 총 이익률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 젠슨 황 CEO는 AI가 변곡점에 도달했으며 생성되는 토큰이 생산성과 수익을 창출, 컴퓨팅이 사실상 매출과 직결되고 있다고 평가. 황 CEO는 전세계적인 AI 인프라 구축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클러스터도 완전히 가동,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전환기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하락했고 실적 발표 직후에도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 회계연도 2028년 매출 성장이 70%를 기록할 것이라는 CFO의 발언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반등, 3% 내외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음. (한국 시각 오전 6시 40분 기준)

다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구글과 아마존, 오픈AI 등이 자체 AI 칩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은 여전히 높은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음.

오늘 금통위 예정

한편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 동결 기조를 깨고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바, 추가 인상 여부에 시장 이목이 집중.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는 지난 2022년 말~2023년 초 이후 3년 7개월만의 일이 될 것으로 보임. 당사는 최근 한은 집행부에서 나온 매파적 메시지와 반도체 수출이 이끈 강력한 성장세, 끈적한 근원물가 흐름 등을 고려,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점도표를 통해 향후 점진적 긴축 속도를 시사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 'Macro Week Ahead_정책 공조 필요한 YCC, 한국은 긴축 속도 주목', 8/21, 민지화·정형기)

특징종목

S&P500 구성 섹터 중에서는 헬스케어(-1.01%)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0.71%), 재량 소비재(-0.62%)가 하락. 산업재(+1.07%)와 유틸리티(+0.47%), IT(+0.37%) 섹터는 상승.

반도체주 시간외 상승폭 확대

엔비디아(-1.59%) 실적 발표를 마감 후로 앞둔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의 반등을 뒤로 하고 반락했지만 여타 반도체주는 대체로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58%), 마벨 테크놀로지(+1.97%), AMD(+0.36%), 인텔(+0.87%), 시게이트 테크놀로지(+3.01%), 샌디스크(+1.26%), 웨스턴 디지털(+4.02%) 등 메모리/스토리지 중심으로 특히 긍정적인 흐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2% 소폭 상승. 반도체 종목군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시차를 두고 반등하자 함께 오름폭을 키우는 흐름.

시간외: 실적 발표주 희비

마감 이후 다수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

우선 엔비디아(-1.59%)가 전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과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 그리고 회계연도 2028년의 성장 전망에 대한 긍정적 수치들을 제공했음에도 실적 발표 직후 2~3%대 하락. 다만 시가 변곡점에 도달했으며 현재는 컴퓨팅 수요가 매출로 직결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젠슨 황 CEO의 발언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반등, 2~3% 내외 상승을 기록. 역시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 변곡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1.97%)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5%대 상승세를 기록.

옥타(+2.92%)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현재 진행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급등.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세일스포스(-0.03%)는 전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돈 가운데 연간 실적 가이드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강하게 상승.

클라우드스트라이크(+2.05%)도 전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돈 가운데 함께 발표한 회계연도 27년 연간 매출 전망 등을 상향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상승.

한편 팰로앨토 네트워크스(-0.17%) CEO인 니케쉬 아로라가 지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데이터도그(+2.10%)와 옥타(+2.92%)를 인수하는 안을 검토했었다는 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있었음. 다만 기사는 데이터도그와 옥타가 인수 제안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했다고 보도. 팰로앨토는 해당 보도에 대해 '루머'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데이터도그와 옥타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음.

이외 HP(HPQ, +3.39%)도 마감 후 공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현재 진행 분기 이익 전망도 시장 기대보다 좋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메모리 가격 급등과 가격 상승에 따른 PC 수요 둔화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5% 이상 약세.

이외 특징주

메타 플랫폼스(+1.07%)는 청소년 대상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약 167억 달러 지급과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 한 합의안을 마련해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법정 소송 관련 불확실성을 빠르게 마무리 지었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애플(+1.15%)은 신임 존 터너스 CEO 취임 후 첫 번째 신제품 공개 행사를 오는 9월 9일로 확정. 애플은 공개될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으나 이 자리에서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

오픈AI는 자사의 첫 번째 맞춤형 AI칩 할라피노를 전일 공개.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말 회사 컴퓨팅 인프라에 배포될 예정. 엔비디아의 수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며 오픈AI 뿐 아니라 구글(-1.43%), AWS(아마존닷컴, -0.30%), 메타(+1.07%) 역시 각자 자체 AI 칩을 개발 중. 한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엔비디아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AWS의 글로벌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엔비디아 GPU 200만개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

테슬라(-1.26%)는 사이버 트럭 일부 트림의 가격을 5,000달러 인상한다고 밝힘. 이번 가격 인상이 수요 확대보다는 차량 생산 및 부품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읽히는 가운데 수요 약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주가 약세.

모건스탠리는 전일 스페이스X(+1.22%)가 1,000억 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 발사장 건설 계획을 공개한 이후 현재 스페이스X 밸류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있다고 평가.

의료기기업체 보스턴 사이언티픽(-3.39%)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일부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힘. 시스템 정상화 시점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도 우려를 자극, 주가 약세로 이어짐.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35.67%)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상향 소식에 급등. 관세 환급에 따른 수익성 개선, 핵심 브랜드의 견조한 성장세가 호실적으로 이어짐.

태양광 인버터 업체 솔라엠티 테크놀로지스(+10.71%)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새로운 정책이 솔라엠티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결정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으로 UBS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자 10% 이상 급등.

반도체 업체 섀미(+10.41%)도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 분기 가이던스에 급등. 다만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인튜이트(-3.24%)는 향후 실적 전망이 기대를 크게 하회한 영향으로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반등

미 국채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수인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된 가운데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당장 금리 인상을 100% 확신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내달 금리 인상을 배제할만한 수준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일 하락했던 국채금리는 상승으로 돌아섬.

전일 2년물에 이어 이날 재무부는 5년물 국채 7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입찰을 실시. 수요가 무난한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 약간 높게 결정된 수익률도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을 견인.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3.5bp 상승한 4.2093%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1.8bp 상승한 4.6465%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0.2bp 상승한 5.1671%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36%대 수준으로 반영.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50% 초반대로 반영.

달러 가치 반등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에 대한 걱정과 한편 탄탄한 내수, 낙폭을 줄인 유가와 상승한 국채 금리 등을 반영해 상승.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25% 상승한 99.16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전장 대비 1.30원 하락한 1,384.8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25원)를 감안 시 서75%을 환시 주간장 증가 대비 0.55원 상승한 1,385.10원에 최종 호가됨.

국제유가 3거래일째 하락..낙폭은 제한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이슈에 낙폭은 제한적. 미국과 이란의 갈등 완화 기대감에 전일 아시아장에 이어 유럽 거래에서 3% 이상 하락하기도 했던 국제유가는 뉴욕 거래로 넘어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상하며 낙폭을 크게 축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술 핵무기 사용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당국자 의견을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 등이 전해지면서 한 때 유가는 1% 안팎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16% 하락한 배럴당 82.23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10월물은 1.26% 하락한 87.84달러를 기록.

국제 금값은 최근 이어진 상승으로 트로이온스당 4,700달러 저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날 국채금리 반등을 마주하자 하락.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 거래소 코멕스(COMEX) 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0.9% 가량 하락, 4,650달러선을 기록. 은값도 1% 가까이 하락해 온스당 68달러선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